

# 국립공원은 우리모두가 主人

李亨雨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

'89년 한 해동안에 약 4천만명이 국립공원을 탐방하였고 이들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는 2만톤 이상이었으며 이를 수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4억이나 되었다. 고산지대에는 쓰레기가 될 물건을 一切 안갖고 가는 등반윤리가 하루속히 확립돼야 할 것이다.

지루한 장마끝에 찾아온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많은 피서객이 전국의 피서지를 찾고 이들의 행락질서와 쓰레기문제 오염과 훼손에 관하여 주요 언론매체는 연일 대서 특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유지·보전과 적정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환경오염은 실로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국립공원 이용행태는 여타 관광지나 유원지와 크게 다를바 없다. 이는 국립공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20여년에 불과하여 관리당국이나 일반국민도 국립공원에 대한 올바른 관리철학과 이용에 관하여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국립공원 제도 및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방향과 이용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에서 발달이된 국립공원 제도는 1930년대에 일본에 도입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1967년 지리산을 시발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사적공원인 경주, 한려해상, 태안해상, 다도해 해상등 3개 해상공원과 설악산, 속리산등 16개의 산악공원등 도합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헬기를 이용하여 高山지대의 쓰레기 처리하는 모습

IUCN(국제 자연보존 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충족요건은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지니고 산업적 이용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국가가 보존하고 알뜰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특별한 법에 따라 결정하여 지정한 곳이어야 하며, 국가가 그 공원의 보호·개발·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그리고 국가가 인력과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관리할 것 등이다.

年間 4천만명의 탐방객중 35%가  
7·8월에 집중되는 현상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현

제까지도 국립공원을 관광지나 유원지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데에서 공원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미국이나 일본·유럽등지에서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된 당시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는 측면, 즉 이용에 중점이 주어졌지만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립공원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관리방향도 당연히 보존쪽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서도 국립공원 관리방향에 대하여 보호를 전제로 한 적정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와 적정이용의 합리적조화란 지극히 이상적이고 이율배반적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현은 참으로 어렵다. 보호만을 내세운다면 공원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완전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연간 4천만명에 달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을 감안할때 여타곳에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등의 대안없이 강제적·인위적 통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인 7~8월에만 연간 탐방객의 35%가 일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이들의 무분별한 이용행태로 인해 자연지원은 수용능력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어 공원환경의 파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관리당국과 이용자들 다같이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인식, 이용자들은 현재와 같은 무질서한 이용은 머지않아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자신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당국은 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를 연구·도입하여 실제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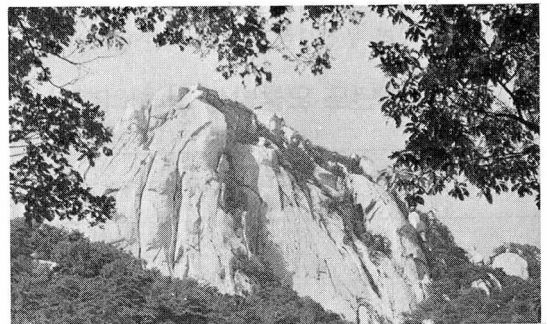
### 생태계보존 위한 등반시설 타당성문제도 검토해야 할 단계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 홍보·계도와 공원의 휴식년제·탐방객 예고제·예약입산제·공원취사금지 제도 등에 관하여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공원별·지역별·시기별로 적용하여야 하고, 케이블카나 모노레일도 타당성을 조사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알프스 케이블카아래는 萬年休息狀態

알프스의 경우 각국에서 상부능선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케이블카가 다수 가설되어 있는 대신 탐방도로외의 지역과 케이블카 아래 부분은 입산을 통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은 만년휴식상태가 되어 거의 완전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산봉과 계곡·폭포·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찰과 귀중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조상의 얼이 깃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대대로 후손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토록 아름답기에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하고 옛날 중국 시인조차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기까지 하였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백운대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우리만 이용하고 말 것인가. 인디언 속담처럼 「자연은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릴때는 양심과 후손을 생각하자.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여 89년에만 약 4천만명이 20개 국립공원을 탐방하였다. 많은 국민이 여가를 선용하여 자연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를 함양하고 스테미너를 재충전하여 직장에 돌아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현상으로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이 찾을때마다 깨끗하고 쾌적해야 할 국립공원이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피서철에는 탐방객들의 오몰투기, 무질서한 행락, 그리고 무분별한 이용으로 공원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몸살을 앓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수

준이 과연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30년대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어 60년대에 국립공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지속적인 쓰레기 안버리기와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여 80년대에는 공원내에서의 무분별한 취사행위와 오물투기가 사라지고 산속의 쓰레기통도 철거하였다.

공덕심이 철저히 생활화되어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릴 수도 없다. 이러한 현상은 무릇 일본뿐 아니라 선진외국에서 국립공원 이용자들의 공통된 이용형태이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겠다. 물론 외국에서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형태가 정착되게 된 이유는 이용자들의 공덕심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도 공원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20개 국립공원중 18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계도·단속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高山지대 쓰레기는 헬기로 내리고 귀중한 재정과 人力이 쓰레기로 탕진상태

'89년 한 해 동안에 약4천만명이 국립공원을 탐방하였고 이들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는 2만톤 이상(표 참조)이었으며 이를 수거·처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14억원이나 되었다. 고산지대의 쓰레기는 인력하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헬기까지 동원하여 하산하고 있음을 볼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립공원의 파수꾼으로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당 공단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올바른 이용유도를 위한 홍보·계도는 물론 자연 휴식년제의 도입, 탐방예고제, 취사 금지제도, 일사 일산가꾸기운동의 확산, 선진관리기법의 도입등 일부는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산지대의 오물하산, 조난자 구조,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해 금년에 자체 헬기까지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노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우리와 후손의 영원한 안식처인 국립공원을 나의 정원처럼 아끼고 가꾸는 마음으로 국립공원을 탐방할때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표) '89년도 오물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89.12.31)

| 사무소별  | 오 물 량  |        |        | 처리량    | '89이월량 | 비 고    |
|-------|--------|--------|--------|--------|--------|--------|
|       | 발생량    | '88이월량 | 계      |        |        |        |
| 계     | 19,437 | 4,720  | 24,157 | 20,515 | 3,642  |        |
| 지리산북부 | 625    | 158    | 783    | 663    | 120    | 누적오물   |
| 지리산남부 | 710    | 226    | 936    | 766    | 170    | (매물)처리 |
| 지리산동부 | 662    | 280    | 942    | 731    | 211    | 1,078톤 |
| 계룡산   | 1,165  | 203    | 1,368  | 1,212  | 156    |        |
| 한려해상  | 1,640  | 8      | 1,648  | 1,648  | -      |        |
| 설악산   | 1,732  | 329    | 2,061  | 1,819  | 242    |        |
| 속리산   | 1,410  | 527    | 1,937  | 1,506  | 431    |        |
| 내장산북부 | 902    | 296    | 1,198  | 988    | 210    |        |
| 내장산남부 | 61     | 168    | 229    | 139    | 90     |        |
| 가야산   | 617    | 134    | 751    | 652    | 99     |        |
| 덕유산   | 598    | 168    | 766    | 646    | 120    |        |
| 오대산   | 678    | 149    | 827    | 715    | 112    |        |
| 주왕산   | 411    | 206    | 617    | 465    | 152    |        |
| 태안해안  | 1,001  | 7      | 1,008  | 1,008  | -      |        |
| 다도해해상 | 699    | 4      | 703    | 703    | -      |        |
| 치악산   | 455    | 121    | 576    | 496    | 80     |        |
| 월악산   | 805    | 261    | 1,066  | 856    | 210    |        |
| 북한산동부 | 2,556  | 1,098  | 3,654  | 2,688  | 966    |        |
| 북한산서부 | 1,132  | 297    | 1,429  | 1,209  | 220    |        |
| 소백산북부 | 280    | 21     | 301    | 287    | 14     |        |
| 소백산남부 | 615    | 40     | 655    | 619    | 36     |        |
| 월출산   | 217    | 15     | 232    | 229    | 3      |        |
| 변산반도  | 466    | 4      | 470    | 470    | -      |        |

- ▲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 옵시다.
- ▲ 취사도구나 음식물 대신 되도록 간식이나 도시락을 지참합시다.
- ▲ 지정된 취사장, 야영장, 주차장, 등산로를 이용합시다.
- ▲ 지나친 음주 및 가무, 고성방가, 사행행위를 삼가합시다.
- ▲ 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하지 맙시다.
- ▲ 계곡물에서 세차를 하거나 비누 또는 화학세제를 사용하여 세면·세탁 행위를 하지 맙시다.